



내일 러 월드컵 2차 예선 라오스와 격돌...35년만에 한해 최다승 도전

이런 경기는 슈틸리케호의 올해 마지막 A매치로 라오스는 FIFA 랭킹 176위의 약체다. 한국(48위)과는 무려 128계단 차이다. 이미 슈틸리케호는 지난 9월 3일 라오스를 홈으로 불러들여서 치른 월드컵 2차 예선 두 번째 경기에서 무려 8-0 대승을 거뒀다. 당시 '손사인' 손흥민(토트넘)이 헤트릭을 맞췄고, 석현준(비토리아 FC)과 이창용(크리스털 팰리스) 등이 득점포를 가동했다. 다만 이번 라오스전이 원정이라는 게 변수다. 경기가 치러지는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엔의 11월 평균 최고 기온은 영상 30도에 육박한다. 또 최저기온은 영상 19도 정도로 일교차가 커 컨디션 유지가 관건이다.

슈틸리케호는 지난 6월 미얀마 원정에서도 고온다습한 날씨 때문에 컨디션 유지에 난조를 겪으며 2-0 승리에 만족해야 했다.

이 때문에 '동남아 원정'의 노하우를 쌓은 슈틸리케 감독은 미얀마전을 마친 선수들에게 곧바로 짧은 휴가를 주면서 체력 관리를 시켰다.

슈틸리케호는 올해 19차례 A매치에서 15승3무1패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지난 12일 열린 월드컵 아시아지역예선 2차 예선 G조 5차전에서는 두 개의 도움을 기록한 손흥민의 활약 속에 미얀마를 4-0으로 꺾는 등 19경기 동안 16경기를 무실점으로 막아냈고, 실점도 단 4골에 그칠 정도로 '철벽 수비'를 구축했다.

이용수 축구협회 기술위원장은 "올해 A매치 일정이 많았는데도 무실점 경기가 많았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상대팀이 약했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지만 대표팀의 전력이 튼튼해졌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라오스로 출국하는 태극전사들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다. 구자철(아우크스부르크)이 경고누적으로 라오스전에 나서지 못함에 따라 소속팀으로 복귀했고, 골키퍼 김승규(울산)는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대표팀을 나왔다. 이에 따라 김승규를 대신해 대구FC의 수문장인 조현우가 합류하면서 라오스로 향하는 태극전사는 총 21명이 됐다.

전날 파주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재소집된 대표팀은 이날 비행기에 올랐다. 대표팀 코칭스태프는 선수들이 호흡기 질환에 노출될 것을 대비해 마스크를 나눠주는 등 원정 준비를 단단히 했다. 베트남을 경유해 라오스 비엔티엔 도착한 슈틸리케호는 저녁 숙소에서 가벼운 실내훈련으로 현지 적응에 나섰다.

한국 야구대표팀 오늘 8강전...준결승은 도쿄돔서



WBSC 프리미어12

한국이 16일 열리는 8강 경기에서 승리하면 일본 도쿄돔으로 장소를 옮겨 준결승전을 치르게 된다.

각 조 4개 팀이 벌이는 8강 승부는 대만에서 열린다. 대회 준결승전과 결승전은 일본 도쿄돔에서 펼쳐진다. 준결승 두 경기는 19-20일 오후 7시 진행되며, 대만의 결승전은 21일 오후 7시에 시작된다. 3-4위전은 결승에 앞서 21일 오후 1시에 열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한국이 1회 2타점 2루타를 때린 김현수와 5회 2사에서 팀의 세 번째 투수로 나와 3이닝을 1피안타 1볼넷 8탈삼진으로 막은 좌완 차우찬의 활약 속에 멕시코에 1점 차의 '진пам승'을 거두며, 15일 열린 미국전 결과와 상관없이 일찌기 8강을 확정했다.

한국이 16일 열리는 8강 경기에서 승리하면 일본 도쿄돔으로 장소를 옮겨 준결승전을 치르게 된다.

각 조 4개 팀이 벌이는 8강 승부는 대만에서 열린다. 대회 준결승전과 결승전은 일본 도쿄돔에서 펼쳐진다. 준결승 두 경기는 19-20일 오후 7시 진행되며, 대만의 결승전은 21일 오후 7시에 시작된다. 3-4위전은 결승에 앞서 21일 오후 1시에 열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어울림 페달 밝기 2015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 어울림 사이클대회가 지난 14일 광주월드컵 경기장일원에서 열렸다. 500여명의 참가선수들이 힘차게 페달을 돌리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FC, 급여 1% 나눔의 기적

22일 축구 꿈나무에 장학금 전달

프로축구 광주 FC가 지역 축구 꿈나무를 위해 마음을 모았다.

광주 FC가 오는 22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울산 현대와의 홈경기에서 앞서 지역 축구 유망주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한다. 이번 장학금은 '급여 1% 나눔 활동'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광주 FC의 선수단 및 임직원은 급여의 1%를 기부금으로 적립해오고 있다.

'급여 1% 나눔 활동'은 지난 2013년 7월 축구사랑 나눔 재단과 함께 시작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의 일환으로 그동안 독거노인 떡국 나눔 및 지원금 전달(금호종합사회복지관)과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후원(서구 청소년수련원 '마인')이 이뤄졌다.

이번에 마련된 장학금은 광주 FC 희망 축구교실 및 꿈 나눔의 날 참여 학교를 대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체육 특기

생(축구) 10명을 선발해 전달할 예정이다.

광주 FC 관계자는 "시민구단으로 지역민에게 작지만 조금이라도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기 위해 선수단 및 임직원의 급여의 1%를 적립, 기부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다양한 계층을 상대로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꾸준히 봉사 및 나눔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약조권 속에서도 지난 시즌 기록을 상회한 광주 FC는 올 시즌에도 1부 잔류를 이루며 K리그 역사에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현재 팀 창단 최다승 타이틀(9승) 기록하고 있는 광주 FC는 22일 울산(홈·오후 2시), 28일 대전(홈·오후 2시)과의 남은 두 경기에서 팀 최다승 경신을 노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추신수 "대단한 선수보다 꾸준한 선수될 것"

'추추 트레이너'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가 2015년을 '가장 기억에 남을 해'로 꼽았다.

추신수는 15일 귀국해 서울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팀이 지구우승을 차지한 것이 무척 기쁘다. 초반에 부진하다 반등하는 과정에서 야구 외적으로 많이 배웠다. 매년 새롭게 야구를 배우지만, 올해는 정신적으로 많은 걸 배웠다. 잊지 못할

했다"고 시즌을 돌아봤다.

추신수는 개막 후 한 달간 타율 0.0%에 그치는 등 자독한 부진에 시달렸지만 9월 개인 통산 두 번째로 '이달의 선수'에 선정되는 등 후반기 반등에 성공했다. 추신수의 부활 속에 텍사스는 4년 만에 아메리칸 리그 서부지구 우승을 차지했다. 아시아 타자 최초로 사이클링 히트를 기록한 7월 22일 콜로라도와의 경기가 전환점이었다.



추신수는 "2009년 20홈런·20도루도 '아시아 선수 최초'라는 기록에 가슴이 뜨거웠다"며 "이번에 '사이클링 히트'를 안건하는 걸 수 있다"는 생각을 했지만, 정말 기분이 좋고, 자부심을 느꼈다. 3루타를 치며 기록을 완

성했는데 3루까지 들어가는 7초 정도의 시간 동안 전반기 힘들었던 기억이 다 떠올랐다. 가슴에 소용돌이가 치는 것 같았다"고 떠올렸다.

추신수는 또 "나는 특별한 선수가 아니다. 홈런을 많이 치거나, 도루를 많이 하지 못한다. 그저 다양한 재능을 가진 선수일 뿐이다. 박찬호 선배님처럼 꾸준하게 오래 뛰면서 아시아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통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선수가 되길 바란다. 대단한 선수보다는 기억에 남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했다.

박지성, 유니세프 자선 경기 풀타임 뛰어

박지성(34)이 유니세프 자선 경기에서 90분을 모두 뛰며 전 세계 축구 올스타들과 호흡을 맞췄다.

박지성은 14일 영국 맨체스터에서 열린 유니세프 자선 경기에 왼쪽 측면 수비수로 출전해 경기가 끝날 때까지 그라운드 위에서 아시아 선수와 메이저리그에서 통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선수가 되길 바란다. 대단한 선수보다는 기억에 남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했다.

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이 영국 올스타 사령탑, 세계 올스타 지휘봉을 안 들며 호흡을 맞췄다.

박지성은 14일 영국 맨체스터에서 열린 유니세프 자선 경기에 왼쪽 측면 수비수로 출전해 경기가 끝날 때까지 그라운드 위에서 아시아 선수와 메이저리그에서 통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선수가 되길 바란다. 대단한 선수보다는 기억에 남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했다.